

2023년 11월 5일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면”(딤후 4:4-5)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본연의 가치를 심으셨습니다. 이 가치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때 누릴 수 있습니다.

[1] 창조를 믿는 믿음

본문은 지으신 것의 의미를 자기 본위로 받아들인 거짓 교사들의 주장에 맞서는 말씀입니다. (예: 결혼 금지, 음식 규례(v.3)) 이것은 금욕적, 문자적 적용에서 파생된 거짓말쟁이의 속임수에서 나온 교훈입니다(v.1-2 참고).

바울은 4절에서 신앙을 바르게 확장할 수 있게 하는 길을 말해줍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피조물 속에 심으신 의미가 무엇인지 찾도록 동기부여하며, 피조물을 의미 있는 존재로 회복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로 가능해집니다(v.5).

[2] 지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4절은 창조를 믿는 사람의 좋은 자세를 제시합니다.

1. 하나님은 피조물을 지으셨습니다
2. 지으신 모든 피조물은 선합니다.
3. 그 피조물(본문에서는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습니다.
4. 그러면 버릴(무가치한) 것 없이 그 가치가 드러납니다 - 참 누림에 이름

이를 볼 때, 지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언제 감사하게 될까요? 필요가 채워지고, 병이 낫고, 문제가 풀리는 등의 일이 있을 때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인생의 여정 속에 불의한 일들이 있었을지라도 은혜로 이끄셨음을 인정하면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3] 감사와 밀접한 감정

그런데 마음을 먹고 감사하려 해도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먼저 참되고 선한 것에 대하여 감동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감동은 마음을 움직여서 내면의 생각과 관점이 새 차원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훌륭한 소설을 읽고, 좋은 영화나 예술의 무대를 보면 감동이 옵니다. 그것이 참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인식라도 확신하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에 어울리게 변화되기를 소망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기가 만난 감동의 경험이 '나를 나 되도록' 성장하게 합니다. 여기서 나를 감동시킨 것은 참된 것이어야 합니다. 간혹 특정사람/특정사상에 감동받아 이단의 가르침이나 지도자를 따르지만 참된 변화를 이루지 못하고 분열과 인간성 황폐에 이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이 아닌 거짓에 속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아무 대가 없이 나의 가까운 일상 속에 심으셨습니다. 가족 안에, 일터 안에, 교회 안에. 그 가치를 발견하면 감동받고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참된 가치를 발견하는 것은 사람의 고귀한 소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주신 복된 선물로 특별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소통(말씀과 기도) 속에서 복된 의미와 가치가 충만해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심어 주신 복된 가치를 발견하여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눔의 질문>

1. 삶에서 관계를 맺고 있는 가족, 직장, 교회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입니다. 그것의 본연의 가치를 발견하고 감사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게 끼친 영향은 얼마나 컸습니까?
2. 많이 얻고 이루려고 성공을 추구하는 동시에,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발견하는 충만한 삶은 병행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감사의 마음은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